

報 道 資 料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06. 4. 5

홍보팀(3441-0835)

담당부서	건설정책 연구실	연구책임자	백성준 부연구위원 강민석 책임연구원	전화 번호	3441-0774 3441-0769
------	-------------	-------	------------------------	----------	------------------------

제 목: 2006년 3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 조사결과

- 2006년 3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는 70.8을 기록함.
 - 지수는 지난달에 비해 6.4p 하락하여 지난해 9월 이후 지속된 상승세가 다소 꺾임.
 - 주택경기 침체로 지방 중소기업체의 체감경기가 50.0 이하 수준으로 낮아진 데 기인함.
 - 규모별로는 대형업체(88.9)가 11.1p 하락하였으며, 중견업체(70.6), 중소기업체(50.0)도 전월대비 모두 하락함.
- 4월 전망지수는 지난 3월 전망치에 비해 21.7p 상승한 115.7을 기록하여 2002년 9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함.
- 3월까지 국가계약법 개정 등으로 지연되었던 신규 발주가 4월부터 정상화되고 판교 분양에 따른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됨.

- 공사물량지수는 77.6을 기록하여 전월대비 7.5p 상승하였으나 기준선에 크게 못 미치고 있어 물량 부족 상태는 계속 되고 있음.
 - 공종별로는 토목(71.8)과 주택(64.9)부문이 각각 6.1p, 0.3p 하락하였으나 비주택(70.3)부문은 2.4p 상승함.
 - 규모별로 보면 대형업체(88.9)와 중견업체(87.5)는 전월에 비해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중소기업체(53.2)는 물량부족 상태가 지속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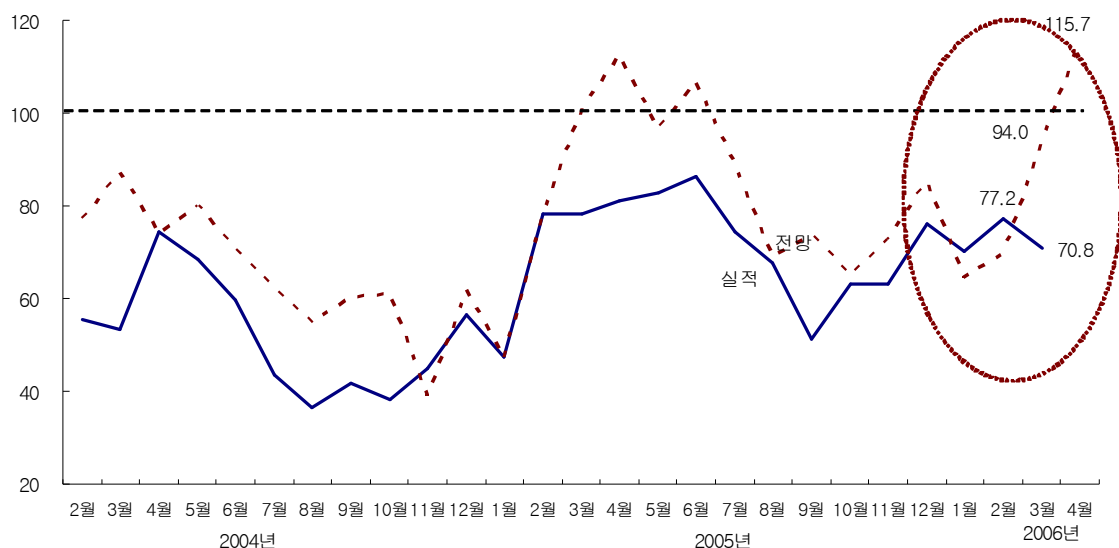
- 인력과 자재부문의 수급은 원활하나 여전히 비용은 높은 상태가 지속됨.
 - 인력과 자재수급지수는 각각 108.6, 105.6으로 수급상태는 원활한 반면, 인건비(95.0)와 자재비(88.3)의 부담은 계속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남.

2006년 3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

4월 전망 CBSI 115.7, 물량확대 기대감 반영

- 2006년 3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는 70.8을 기록함.
 - 체감경기는 지난달에 비해 6.4p 하락하여 지난해 9월 이후 지속된 상승세가 다소 꺾임(1월 하락은 계절적 영향).

< 경기종합 BSI 추이 >



- 규모별로는 대형업체의 체감경기가 전월에 비해 크게 둔화되었으며 중견업체와 중소기업도 소폭 하락하여 전월의 전망수준에 크게 못 미침.
 - 대형업체(88.9)는 지난달에 비해 11.1p 하락함.
 - 중견업체와 중소기업은 각각 70.6, 50.0을 기록하여 여전히 체감경기가 낮은 상태가 지속되고 있음.
 - 지역별로는 서울업체와 지방업체가 각각 84.5, 49.8을 기록하였으며 지방업체의 체감경기 하락이 두드러짐.

< 규모별·지역별 경기종합 BSI 추이 >

구 분		2005년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06년 1월	2월	3월	4월 전망
총 합		81.2	82.9	86.4	74.2	67.8	51.3	63.0	63.3	76.1	70.1	77.2	70.8(94.0)	115.7
규모별	대형	100.0	109.1	107.1	100.0	83.3	41.7	61.5	72.7	100.0	80.0	100.0	88.9(100.0)	144.4
	중견	81.6	71.0	90.5	76.5	63.9	59.1	76.9	59.3	79.4	70.6	71.1	70.6(91.9)	100.0
	중소	58.8	65.9	57.4	41.5	54.0	53.7	48.9	56.9	44.4	58.0	57.4	50.0(89.4)	100.0
지역별	서울	96.1	101.6	98.5	86.4	80.9	50.1	71.0	69.5	87.4	79.3	87.5	84.5(96.3)	133.2
	지방	57.7	54.4	63.6	59.8	57.6	55.5	60.3	53.2	38.8	57.3	62.3	49.8(90.8)	9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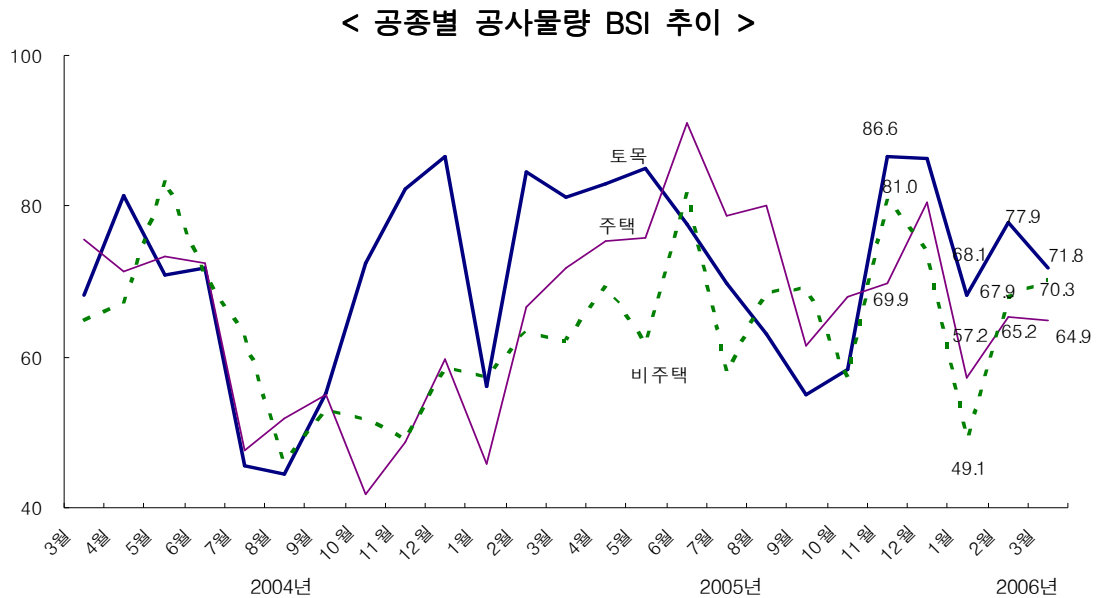
주 : ()는 전월에 전망한 수치임.

- 3월의 체감경기 하락은 예상되었던 공공발주가 국가계약법 등 제도변화 논의의 지연으로 정상화되지 못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됨.
 - 최저가 낙찰제 확대에 따른 간이PQ제도, 적격심사 낙찰률 조정 등 국가계약법 및 회계예규의 결정이 지연되면서 공공발주도 지체됨.
 - 지방 중소기업체의 경우에는 8·31 대책이후 주택경기 위축이 가시화 되면서 체감경기가 악화됨.
 - 지방업체와 중소기업체의 경우 50선 내외에 머무르며 체감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 2006년 4월 건설경기 전망은 115.7을 기록함.
 - 기준선을 크게 상회한 것으로 4월 물량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됨.
 - 통상적으로 3월부터 발주물량 증가가 본격화되지만 올해는 최저가 확대 등 제도변화가 크고 조기발주 경향이 사라지면서 3월의 물량증가가 크지 않아 4월에 대한 기대감이 상대적으로 커짐.
 - 규모별로도 대형업체(144.4)와 중견업체(100.0), 중소기업체(100.0) 모두 100이상의 전망지수를 기록함.

4월 대형업체 및 중견업체, 토목건축물량 고른 증가 전망

- 공사물량지수는 77.6을 기록하여 전월대비 7.5p 상승하였으나 기준선에는 크게 미치지 못함¹⁾.
 - 공사물량지수는 전월에 비해 다소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대형업체와 중견업체의 상승세가 두드러짐.



- 공종별로는 토목과 주택부문이 하락하고 비주택부문은 소폭 상승함.
 - 토목물량지수는 71.8를 기록하여 전월에 비해 6.1p 하락함. 특히, 대형업체의 경우, 33.3p나 하락함.
 - 주택부문은 64.9를 기록하여 지난 달(65.2)에 비해 0.3p 하락하였고 부진한 상태가 지속됨.
 - 비주택 부문은 70.3를 기록해 전월대비 2.4p 상승하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음.

1) 총 공사물량과 공종별(토목, 주택, 비주택)물량은 서로 다른 항목으로 조사됨으로 인해 공종별 지수와 전체 물량지수간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규모별·지역별로는 전반적으로 크게 물량이 부족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체의 물량부족은 심각한 상황임.
- 대형업체는 공사물량 지수가 88.9를 기록하면서 전월대비 8.9p 상승하였으나 기준선에 미치지 못함.
- 중견업체와 중소기업체도 각각 87.5, 53.2를 기록하여 소폭 상승하였으나 기준선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음.
- 지역별로는 서울업체가 89.3로 전월(64.4)에 비해 24.9p 상승하였으며 지방업체도 59.7로 8.1p 상승함.

< 공사물량 BSI >

구 분		종합	대 규 모			지 역 별	
			대형	중견	중소	서울	지방
전체	실적	77.6	88.9	87.5	53.2	89.3	59.7
	전망	100.5	100.0	103.2	97.9	106.0	92.3
토목	실적	71.8	66.7	87.1	60.4	72.5	70.0
	전망	93.5	77.8	113.3	89.4	92.7	96.5
주택	실적	64.9	66.7	93.5	30.2	70.2	56.1
	전망	98.5	133.3	96.8	59.5	118.3	70.3
비주택	실적	70.3	88.9	77.8	40.0	85.2	46.7
	전망	94.3	111.1	100.0	68.2	114.1	67.5

주 : 실적은 2006년 3월 실적지수이며 전망은 2006년 4월 예측지수임.

- 2006년 4월 공사물량 전망지수는 100.5를 기록함.
- 최근 3개월째 지수가 크게 상승하고 있음(54.8(12월 전망)→78.3(1월 전망)→98.2(2월 전망)→100.5(3월 전망)).
- 이는 4월에 판교 터키공사 수주, 공공부문 발주 정상화 등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음.

중소업체 자금 조달 어려움 지속

- 자금관련 상황은 대형업체를 제외하고는 모두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
 - 공사대금수금지수와 자금조달지수는 각각 91.5, 93.5로 지난달 보다 다소 하락함.
 - 대형업체의 경우 공사대금수금과 자금조달지수가 각각 100.0, 111.1을 기록하여 자금여건은 양호한 것으로 조사됨.

< 자금·인력·자재 BSI >

구 분			종합	규 모 별			지 역 별	
				대형	중견	중소	서울	지방
자금	공사대금수금	실적	91.5	100.0	100.0	72.0	95.9	84.6
		전망	92.2	111.1	85.7	77.6	97.9	85.2
	자금조달	실적	93.5	111.1	94.1	72.0	101.8	80.4
		전망	92.0	100.0	91.2	83.7	97.3	85.5
인력	수급	실적	108.6	111.1	117.1	95.9	112.5	104.3
		전망	116.0	122.2	120.0	104.1	120.7	108.9
	인건비	실적	95.0	111.1	82.9	90.0	100.0	87.4
		전망	95.6	111.1	82.9	92.0	101.6	86.5
자재	수급	실적	105.6	111.1	108.6	95.9	110.9	99.4
		전망	113.8	133.3	105.7	100.0	122.3	100.9
	비용	실적	88.3	111.1	68.6	84.0	97.3	74.5
		전망	71.3	77.8	62.9	73.5	75.0	65.4

주 : 실적은 2006년 3월 실적지수이며 전망은 2006년 4월 예측 지수임.

- 인력과 자재조달의 경우, 수급 여건은 원활하나 비용 측면에서는 여전히 높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 인력수급과 자재수급지수는 각각 108.6, 105.6으로 전월대비 5~6p 하락하였으나 전반적인 공사물량의 감소로 인력 및 자재 수급은 계속 원활한 것으로 조사됨.
 - 인건비(95.0)는 전월에 비해 크게 나아졌으며 자재비(88.3)도 전월에 비해 약간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높다고 응답한 업체가 많음.

- 2006년 4월에도 인력 및 자재의 비용은 높은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조사됨.
- 2006년 4월의 인력과 자재수급 지수는 각각 116.0, 113.8을 기록하여 인력 및 자재수급은 여전히 원활할 것으로 예상됨.
- 인건비 지수와 자재비 지수는 각각 95.6, 71.3을 기록하여 인건비 부담은 크게 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자재비용 상승 부담은 클 것으로 예상됨.